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 증시, 낙관론에 힘 실으며 최고가 랠리

-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 지속
- 연준 이사 “성급한 금리 인상 경계해야”

Summary

미국증시 상승: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

5월 2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 낙관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적 호전주의 급등이 더해져 주요 지수 모두 최고가 랠리를 지속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72% 상승한 51,032.46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2% 상승한 7,850.0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20% 상승한 26,972.62에 거래를 마칩. 3대 지수 모두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만 중소형주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해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지수는 0.59% 하락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 VIX는 2.67% 하락한 15.32에 마감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저를 기록함.

한 주간 다우지수는 0.90% 올랐으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나스닥 지수는 2.39% 상승해 역시 2주째 강세. S&P500 지수는 한 주간 1.43% 상승했으며 이로써 주간 기준 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다우 +0.72%, 나스닥 +0.20%, S&P500 +0.22%, 러셀2000 -0.59%)

미국-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 유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이제 상황실로 가서 종전 협의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중요성이 낮은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마무리됐다”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서는 “해상 봉쇄로 인해 해협에 갇혔던 선박들은 이제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는 최종 결정이 곧,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이 강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됨.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MOU가 최종 승인 단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이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결을 달리하는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동결 자산 해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파르스 통신은 120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는 것이 다음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음.

마감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역시 약 2시간 동안의 상황실 회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를 포함한 몇 가지 사안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

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왔으며 결국은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에 좀 더 무게를 실으며 상승 마감.

입장차는 여전

한편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했으며 핵무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조항에 추가 조건을 넣은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합의에 거의 근접했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이란 사태를 다른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말해 군사 작전 카드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

이에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 역시 미국과의 문안 교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해당 문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해당 소식통은 이란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덧붙임.

즉 시장은 낙관적 시각을 한 발 앞서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사태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관련 이슈의 향방은 유가와 금리를 매개로 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성급한 ‘금리 인상’ 경계론

최근 연준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날은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미셸 보먼 이사가 성급한 긴축론에 제동을 걸고 나섬. 보먼 이사는 일시적으로 높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불필요한 정책 긴축을 초래해 경제 활동과 노동시장 여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지난 연구 결과들은 일시적인 에너지 충격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 다만 보먼 이사는 “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팔라질 경우 위험의 균형을 바라보는 나의 접근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여 중동 정세가 장기화할 경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김.

특징종목

델 33% 급등.사상 최고가 경신

컴퓨터 제조 업체 델 테크놀로지스(+32.76%)가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기술주 강세를 견인. 델 테크놀로지스는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매출이 438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88% 급등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회사

는 올해 연간 매출이 최대 1,6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 역시 시장 예상치 1,420억 달러를 크게 상회. 델의 전분기 실적이 급증한 것은 AI 서버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영향.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탑재한 델의 AI 서버 매출은 지난 분기 161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757% 급증. 회사 최고 운영 책임자(COO) 제프 클라크 부회장은 “시에서의 기회는 둔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뱅크오브아메리카는 델의 실적이 역사적인 것이라 평하며 주가가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델 효과에 힘입어 HP(+8.1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1.60%),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12.64%), IBM(+12.71%) 등 서버,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PC 등 관련 산업 내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으며 AI 산업 전반의 열기가 여전한함을 반영해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브로드컴(+4.7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14%), 퀄컴(+3.18%), 샌디스크(+3.25%) 등 일부 AI 관련 반도체 종목도 강세.

소프트웨어, 실적 보며 안도

AI 에이전트의 발전과 영역 확장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체로 하락 압력이 짊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이날 강하게 상승. 최근 업종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점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짐.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아사나(+15.62%)는연간 매출 가이드스와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급등. 앞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 목표가 상황이 잇따르기도 했던 경쟁사 아틀라시언(+15.37%)역시 AI 기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채택 확대에 대한 기대로 동반 급등. 전일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36% 급등했던 스노우플레이크(+6.84%)도 아틀라시언 효과에 더해 HSBC가 AI 관련 데이터 분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망하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높인 가운데 추가 상승.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업체 엘라스틱(+12.31%)도 동반 상승.

마이크로소프트(+5.31%)는 이번주 연계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Build)’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 AI 모델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반영하며 강하게 상승.

사이버 보안 기업 옥타(+30.14%)는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며 급등. 펠로 앨토 네트워크(+9.28%), 지스케일러(+7.45%), 크라우드스트라이크(+8.94%) 등 여타 보안 관련주가 동반 상승.

다만 또 다른 사이버 보안 업체 센티넬원(-8.16%)은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에 약세.

유가 하락..에너지 밸류체인 전반 약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최종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에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

면서 에너지 관련주는 약세를 지속. 업스트림에서 셰브론(-0.31%), 엑슨 모빌(-1.16%), 옥시덴탈 페트로리엄(-1.20%), 코노코 필립스(-0.88%), EOG 리소시스(-0.89%) 등이 하락했고, 유전 서비스 업체 솔럼버거(-1.03%), 할리버튼(-1.81%), 베이커 휴즈(-1.28%) 등도 일제히 약세. 미드스트림에서 타르가 리소시스(-2.69%), 원오크(-3.54%), 킨더 모건(-2.60%), 윌리엄스 컴퍼니스(-2.38%) 등이 약세.

우주 항공주: '뉴글렌' 폭발 여파 반영

최근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을 당겨 반영하며 대체로 연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우주항공 기업들이 이날은 약세 전환.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의 차세대 대형 발사체 '뉴글렌'이 엔진 점화 시험을 하던 중 폭발해 복구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 로이터 등의 외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발사대가 사실상 파괴됐으며 최소 6개월 이상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함. 업계에서는 뉴글렌의 장기 운항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아마존의 위성망 구축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뉴글렌은 올해 말 블루오리진의 달 착륙선 '블루문' 발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며 NASA는 최근 블루오리진에 2028년 아르테미스 4호 임무를 지원할 달 탐사차 운송 계약을 발주한 바. 로켓 랩(-3.07%), AST 스페이스모바일(-14.79%), 에코스타(-1.43%),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5.83%) 등이 약세.

이외 특징주

의류 소매업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11.83%)는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한 영향으로 하락. 현재 진행 분기 실적 전망도 팩트셋(Fact Set)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더함.

또 다른 의류 소매업체 갭(-15.40%)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 갭은 올해 매출 성장률과 매출액 전망치를 하향 조정. 전분기 실적도 매출단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함. 다만 회사는 부진한 실적에 대해 소비 위축의 영향이라기보다 회사의 시즌 상품에 대한 기획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

데이터 인프라 기업 넷앵(+22.39%) 역시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실적 가이드를 예상보다 높게 제시하며 급등.

태양광 에너지 기업 넥스트파워(+14.02%)는 배터리 저장 회사 프레발론 에너지를 약 3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급등. 연간 매출 가이드선도 상향함.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보험권 혼조

미 국채 금리는 보험권에서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해 관망

하는 분위기가 내내 짙었으며 오후 들어서도 최종 결정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자 저점 대비 낙폭을 줄이거나 소폭 반등하기도.

2년물 국채금리는 1.10bp 하락한 4.014%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4.453%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0.9bp 상승한 4.993%로 5%에 다시 근접.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3%대로 전장 대비 소폭 높여 반영.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7%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0%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로 집계.

달러 가치, 유가와 함께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 하락과 맞물려 하락.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893으로 0.126% 하락. 장 중 MOU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98.75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국과 이란에서 여전히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이 이란 매체를 통해 확인되었고 오후 들어서도 최종 결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저점 대비 낙폭은 소폭 축소. 유로-달러 환율은 0.144% 상승한 1.1664달러를 기록해 유로 대비 달러 약세를 반영함.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07.90원 대비 3.20원 하락한 1,504.7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05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35원 하락한 1,506.50원을 기록.

유가 하락..WTI 87달러대 마감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확대하며 하락 마감.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WTI는 장 중 3% 가까이 하락해 배럴당 86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기도.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73% 하락한 배럴당 87.36달러를 기록해 종가 기준 지난 4월 17일 이후 최저를 기록. 브렌트유 7월물은 1.77% 하락한 배럴당 92.05달러에 마감.

국제 금 가격은 종전 합의 임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상승.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31% 상승한 트로이 온스당 4,591달러선에 마감. 이틀 연속 상승.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5달러 후반대에서 보합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